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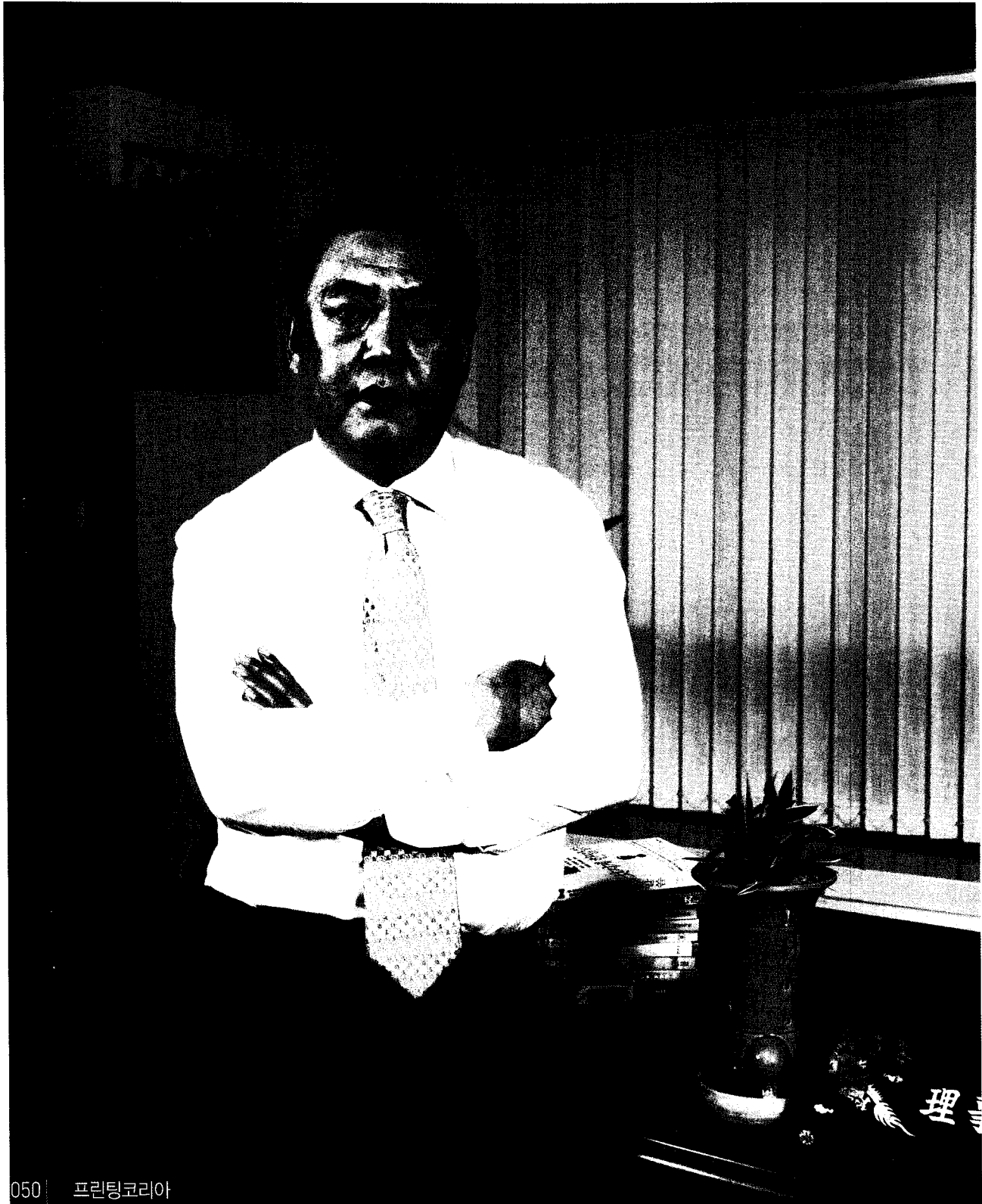
● 기자간담회

신임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3월 11일 11시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원호 이사장은 앞으로 인쇄업계를 이끌어갈 방향과 소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지 임남숙 차장, 인쇄계 안혜정 이사, 인쇄문화 박진우 부장, PT 이현진 기자, 인쇄산업신문 조차주 부장, 인쇄저널 오혜경 과장이 참석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자간담회

“홍보채널 강화로 소통하는 조합 만들겠다”

- 조합부터 흑자 재정으로 바꿀 것



Q 조합의 이사장을 맡으신 소감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상처를 입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 서울인쇄조합 선거만큼 깔끔하게 진행된 적도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정석 전이사장님과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목었던 감정이 있다면 모두 청계천물에 흘려버리고 업계를 위해 분골쇄신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담지 않고 업계를 위한 것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Q 서울인쇄조합을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십니까?

조직이 잘 구성되어야 하고 조직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인쇄인의 정보부족도 있지만 단체들의 경우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설운영자금 지원, 청년인턴십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중구청의 저리용자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도 쓰고 있는 사람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쇄저널이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쇄저널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편집위원회가 아닌 홍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원 1명을 간사로 둘 예정입니다.

또한 인쇄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카페만 들어가 봐도 댓글도 많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조합 홈페이지의 경우 연혁 등 일부 자료만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활성화해 인쇄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조합 직원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라면 전문가들에게 물어서라도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조합에는 등산회, 낚시회, 축구회 등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단순한 모임에만 그치지 않고 모임후기를 올려놓는다면 서로간의 덕담이나 좋은 글 등을 올리도록 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 새로운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이사진구성도 이전에는 감사 2분까지 포함해 52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이사진들은 모두 젊고 역동적인 사람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조합에서 일하던 사람이 센터 등 타 단체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쇄센터 및 인쇄협회, 기술협회 등에 이사진 명단을 보내 중복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진 뿐 아니라 서울조합 내 각종 위원회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조합 내에는

사업분과위원회, 포상심의위원회, 홍보위원회, 전산구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합 이사진이 젊은 사람으로만 구성되었다면 제도개선위원회는 원로에서 젊은이까지 신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조합조직화뿐 아니라 인쇄표준단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단을 대한인쇄문화협회로 넘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지난 2월 총회로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수장이 모두 50대로 교체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단체의 수장이 50대로 교체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50대로 수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서울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저보다 젊습니다. 박영규 행정부시장, 강철원 국장 등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어렵니다. 인쇄업계는 제가 어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제가 많은 나이에 속합니다.

Q 인쇄표준단가 기준표 작성, 경인쇄조합 청산 조기 마무리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쇄표준단가 기준표 작성은 벌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것을 많이 참고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제단법인 경제저널에서 2008년에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인 2011년 가격표 번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CTP 등 최신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인쇄조합, 서울인쇄센터, 동국대가 뭉쳐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고 인쇄표준단가 기준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경인쇄조합 청산 조기 마무리는 관련회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9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바로 변호사에게 보내 조기에 끝낼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50대로 수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업계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Q 서울시와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필동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로 되어있는데, 인쇄인들의 경우 “내가 산 땅에 내 돈 들여 공장을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동에서 62%가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구청의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운재정비 계획에 따라 신성상가와 진양상가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철거된 곳에 녹지를 조성해 관광벨트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인쇄인사와 디자인회사들은 모두 어디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에서 잡화 의류 봉제를 하던 공장들이 모두 동대문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서울시 4대 전통산업 중 첫 번째 산업인 인쇄를 그냥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프트처럼 역세권에 장기임대 사무실을 만들어 인쇄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Q 조합건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건물을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건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7층 강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안건으로 처리해 물어볼 것이지만 7층 강당을 없애고 임대를 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각 부회 총회나 조합과 연합회에서 이사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강당의 1년 수익이 2천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당 대신 임대를 놓는다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인쇄기자재 업체나 지류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서로서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건물의 임대료 수입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인건비 청소용역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안의 살림살이부터 적자재정에서 흑자재정으로 바꿀 것입니다.

Q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전 박충일 회장님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맨 끝 자리에 앉으라고 하기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끝에 앉히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다음부터 그런 말씀하시려면 오시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회장님께 듣고 제 마음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이 분을 열심히 도와주고 인쇄업계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